“ 하늘전쟁 ”

■ **이종윤 원로목사**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미가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한다고 했다. 그 하늘전쟁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원초전인지, 아니면 세상 끝에 일어날 종말전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한다. 전자나 후자가 아니라면 언제 일어날 전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단서는 계시록 12:11에 있다. 여러 형제들이 사탄을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과거 어느 시점에서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결과로 사탄을 이긴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언제 사탄을 이기셨는가? 그리스도께서 피로 이긴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다. 구속사의 과정에서 사탄에 대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였다.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인데 그 피에 근거한 사탄과의 싸움에 미가엘이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등장한 것뿐이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로서, 사탄의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다. 계시록은 3년 반 동안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고 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므로 이 하늘전쟁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탄과 싸워 일어난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 전쟁인가?

하늘전쟁의 실패로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이 그 부하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나서 욥,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 사탄은 유다를 유혹했고, 베드로를 배신자로 만들었으며, 박해와 유혹을 무기삼아 사람들을 파멸로 이끈다.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눅 10:18) '공중 권세 잡은 자'란 하늘에서 쫓겨났다 다시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고, 장소적인 개념보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의 참소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롬 8:1) 하셨다.

마귀는 전체가 거짓

하나님이 친히 부리시는 미가엘이 땅에로 쫓겨난 마귀 붉은 용과 싸운다.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케 하고 그들을 죽게 했으므로, 피를 흘리는 자 즉 처음부터 살인자다. 피를 흘리는 자라는 의미에서 붉은 용이라 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서 난다. 마귀 자체가 거짓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선하게 지으셨지만, 하나님을 반역했으니 진리 전체를 반역한 것이다. 따라서 마귀는 전체가 다 거짓이다. 다른 천사들까지도 그 꼬리로 꾀어 타락시켜 군대를 만들었다.

진리와 비진리의 영적싸움

세상적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전쟁은 언쟁을 하는 사상전을 뜻한다. 그러나 마귀는 그 속이는 세계가 진리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비진리의 참상과 거짓의 흑암은 빛 앞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마귀는 자신이 거짓된 것을 주장하는 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반역을 한다. 그러니 오래 견디지 못한다.

사탄은 여인(교회)을 공격하나 신앙고백과 기도의 무기로 대적하라

용을 하나님께 고소했으나, 마귀는 패배했고 진리가 승리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니라" 했다.(약 2:19)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말할 때 귀신 마귀는 떨고 물러간다. 성도들이 신앙고백을 진실하게 하면 마귀는 쫓겨 간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유 1:9)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변론할 때 주님께 기도함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 진실한 기도와 신앙고백이 영적전쟁의 참되고 힘 있는 무기다. 산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려도 진실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마귀는 꼼짝 못하고 쫓겨 간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거짓된 사탄과 싸워 "내가 이기었노라"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는 성도(교회)가 되자.

-한국장로신문 2018년 1월 27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직 죄인 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뵙기를 소원합니다.

한편, 지난 주일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회원 1,130명 중 84.9%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서울교회의 법적 토대가 더욱 공고해 졌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3년도 섬김위원 임명은 다음 주일(12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1204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혜정,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옥(인도), 서광종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제32권 제49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22년 12월 4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신앙인 ”

■ **마태복음 3:1-12**

대림절 기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을 주신 것처럼 이웃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기간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적 정돈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을 통한 자기 성찰과 신앙점검 그리고 희망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의 야인으로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긴박하게 외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회개하라

요한은 세례에 앞선 회개를 촉구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불렀습니다(막1:4). 회개란 죄를 깨닫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간청하는 일입니다. 회개가 모든 신앙인에게 가장 긴급하다고 본 것은 회개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자신에 대한 영적 성찰의 결과로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눅5:8). 바울은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라고 통절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죄인 됨의 발견은 세속적인 욕망의 포기로 이어집니다. 삭개오는 회개할 때 토색한 것의 4배를 갚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물질에 대한 개념을 바꾼 것 그 자체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비움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존엄하고 고귀한 삶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삶이 누추한 것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2. 회개의 열매

세례 요한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 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당시 이스라엘은 한 끼 식사를 해도 율법의 조항들을 생각했고 문을 들어갈 때에도 율법을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얻으면 ‘율법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좋아했고 율법 전승을 부모의 가장 중요한 도리로 생각했습니다. 생활 자체의 모든 것이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당시의 종교생활을 위선적인 형식적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회개의 열매는 회개한 사람에게 적합한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열매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형식은 화려하고 의식은 거창하지만 신앙의 진정한 정신을 외면한 그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회개는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잘못이 있으면 회개해야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고백해야 하고 교만했으면 겸손하게 변화되어야 하고 미워했으면 사랑해야 하고 위선이 있었으면 진실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의 구체적 열매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3. 알곡은 곳간에

세례 요한은 자기 한계를 잘 알았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그 시대를 구원하지 못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 뒤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인간의 근본적 변화와 거듭남을 구현하실 것이라고 증거하면서 그가 모든 알곡들을 하나님의 창고에 모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회개하고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계절이 대림절입니다. 그 길은 회개로 만들어집니다. 진실하고 깊은 회개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 주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알곡 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와 능력으로 임재하시도록 회개와 변화로 주의 길을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되고 서울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Ⅰ	오전 9시	조동수 목사	오윤걸 장로
Ⅱ	오전 11시	안용곤 목사	이계홍 장로
Ⅲ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시 95:6-7···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9(1절)···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116(구주강림2)···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맡 은 이
찬 송 Hymn ·····98···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 3:1-12···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신앙인"···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411(473)···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설교: 전재홍 목사

묵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66:1-2 ····· 인 도 자
찬 송 ····· 84(96) ····· 다 함 께
기 도 ····· 이경진 집사
찬 송 ····· 331(375) ····· 다 함 께
성 경 ····· 막 8:1-10 ····· 인 도 자
성경대학 수료식 ····· 맡 은 이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먹을 것이 없어도" ··· 설 교 자
* 찬 송 ····· 391(446)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수요예배

Ⅰ부 오전 11시 · 인도: 김익환 목사
Ⅱ부 오후 7시 ·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Ⅰ부: 김선영 권사 Ⅱ부: 남태영 권사
성 경 ····· 왕상 12:16-33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 손달익, 안용곤 목사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설 교 ····· 손달익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전지희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마 3:3)		
수요Ⅰ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성구			
수요Ⅱ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 홀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 회 소 식

◈ 모 임
1. **스데반회 회의** / 4일(주) 오후 1시 30분 802호
2. **권사회 총회** / 4일(주) 3부 예배 후 101호
3. **정기당회** / 7일(수) 수요 2부 예배 후 402호
4. **스데반회 총회** / 10일(토) 오후 3시 101호
5. **가브리엘 절기찬양 리허설** / 10일(토) 오전 11시 - 오후 3시 본당
6. **유초등부 연합찬양대 리허설** / 10일(토) 오후 3시 - 오후 5시 본당

◈ 알 림
1. **101호**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 10분-11시
3. **403호**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6. **602호**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10분 · 오후 12시 10분-오후 1시
7. **603호**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8. **609호**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9. **701호**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0. **702호**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1. **706호**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2. 세례식 교육 및 문답 - 금년도 네번째 세례식인 12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12월 11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교육 : 12월 4일(주일) 오후 12시 20분 609호
- 세례 문답 : 12월 4일(주일) 오후 1시 30분 609호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753명	481명	2,512명	382명	1,660명

동일성을 상실한 위기

목전에 놓인 이권과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동일성을 상실한 채 자기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서운 위협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간음하는 세대를 공격하며 유대인의 낡은 전통의 뿌리를 뽑는 일을 쉬지 않고 단행하였다. 한국 교회가 금주, 금연, 축첩제도를 반대하고 사회적 불의에 항거한 것은 분리주의자가 되어서가 아니고, 샤머니즘이나 유불선의 타종교에 대해 비판적이며 야합을 거부하는 것은 배타주의적 태도 때문이 아니다. 기독교가 그 본질을 상실하거나 대화나 연합이라는 구실로 혼합주의 또는 통일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은 기독교를 뿌리째 흔드는 사탄적 발상이므로 이를 단호히 배격하기 위함이다.

순결을 상실한 교회, 자기 동일성을 깨뜨린 칠면조 같은 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자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 유 지 —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끕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